

‘파는’ 문화와 ‘쓰고 읽는’ 문화

김학수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

가끔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 과연 양식있는 사회란 어떤 것일까? 소위 교양있는 시민이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질서를 잘 지키는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회이다. 그런 사회를 우리는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좀더 유식하게 말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일컫기도 한다.

어떤 할머니가 한 평생을 콩나물 기르기로 보내다가 자신의 경험을 일일이 기록해둔 메모를 토대로 책 한권을 썼다. 가구짜기에 평생을 바친 어떤 목수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서 내놓은 책이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고스톱에 미친 한 샐러리맨이 쓴 고스톱의 원리와 철학이라는 책이 젊은이들 사이에 필독서가 되고 있다. 외교관의 아내로 30년을 해외에서 보낸 어떤 부인이 쓴 세계의 이모저모는 해외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안내서이다.

이런 책들이 불행히도 아직 우리 곁에 나와 있지 않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에도 반드시 지혜의 노하우가 있는 법이며, 그것을 후대에 전달해 주는 문화가 가꾸어져 있지 않다. “아주 아주” 평범한 시민이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축적한 지혜를 한권의 책으로 내놓을 줄 아는 사회, 나는 그것이 바로 교양있는 시민이 사는 양식있는 사회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사회는 질서와 인권과 이웃을 존중하는 사회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 지혜의 나눔이 없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가꾸어질 수가 없다.

“쓰는 문화”가 책의 문화에서 가장 우선이다. 쓰는 이가 없이는 책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글로 옮길 줄 아는 것과는 너무나 별개의 문제이다.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지혜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매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머리속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글로 옮기기 위해서는 특별하고도 고통스런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할 줄과 글맥을 이어갈 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책 한 권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쓰는 문화가 발달한 사회, 그때에는 지혜의 르네상스가 가능할 것이다.

“읽는 문화”의 실종, 그것이 바로 현대의 특징이다. 신문의 판매부수가 날로 떨어져가는 반면에 텔레비전의 시청률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 깨알 같은 글로 구성된 이백쪽 이상의 책보다 그림과 여백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간 만화책 같은 것이 늘어나고 있다. 보는 문화가 읽는 문화를 대체시켜 가고 있다. 읽는 일에는 피로가 동반하지만 보는 놀이에는 휴식이 따라온다. 일을 저버리고 놀이만 쫓는 문화가 범람하고 있지 않은가. 보는 놀이가 머리를 비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읽는 일이 장려되지 않는 한 생각없는 사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책의 문화는 바로 읽는 일과 직결되며,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파는 문화”의 육성, 이것이 ‘책의 해’ 한 해 동안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대중매체에 의한 집중적인 도서 소개,公私기관들에 의해 범국민적 홍보에 힘입어 최대의 불경기 속에서도 책 시장만큼은 경기가 좋지 않았던가 싶다. 사실 시장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생산해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파는 문화도 책의 문화를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일주일엔 한번은 책방에 들러 줄 아는 가족들이 이 해에 특별히 많이 탄생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책의 해’가 “파는 문화” 말고 “쓰는 문화”와 “읽는 문화”를 육성하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런 보다 바탕이 되는 문화들을 부추기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책의 문화가 육성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더더욱 진정으로 양식있는 사회, 교양있는 시민을 일구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바로 ‘책의 해’가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

뉴스	2	성인 월평균 독서량 일본과 비슷·외
표지인물	4	고백과 참회 전제한 한국현대사 증언록 자서전 「빈 들에서」 낸 강원몽 목사
특집	6	출판문화 발전 계기 이를 거대한 불씨 — 최태원 '93 책의 해를 총결산한다
	10	정보화사회 출판의 미래를 전망한다 국제학술심포지움 '멀티미디어시대에서의 책의 진로' 밀라그로스 텔 코랄 / 페르난도 구에데스 / 유재천 / 페데리코 이바네스 솔레르 / 게르하르트 쿠르체 / 이만재 / 유 가네하라 / 캐롤 리셔 / 알렉시스 코즈모프 / 아블 핫산 / 장 가페노 / 이중환
	14	전국민 독서실태조사와 독서진흥방안 한국출판연구소서 설문조사...독서량 및 독서인구 적지 않아
서평	18	김문환 「사회미학」 — 이성훈 팍스 「의료의 사회학」 — 허 정
	19	민경국 「헌법경제론」 — 안석교 천이두 「한의 구조연구」 — 김열규
	20	돋슨 「녹색정치사상」 — 황태연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 이창식
	21	김석만 「스타니스슬라프스키 연극론」 — 최형인
해외출판	22	텔레비전은 결코 책의 적이 아니다 — 유은영 광범한 수용자에 큰 영향력...이용과 제휴 방안 찾아야
화제의 신간	24	김지하의 「웅치경」 외 불교시대사 「불교상식백과」
	25	「안교수의 영화산책」 외 「황제를 꿈꾸는 아이들」 외
	27	신간안내
자료	34	출판저널 총목차
	40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